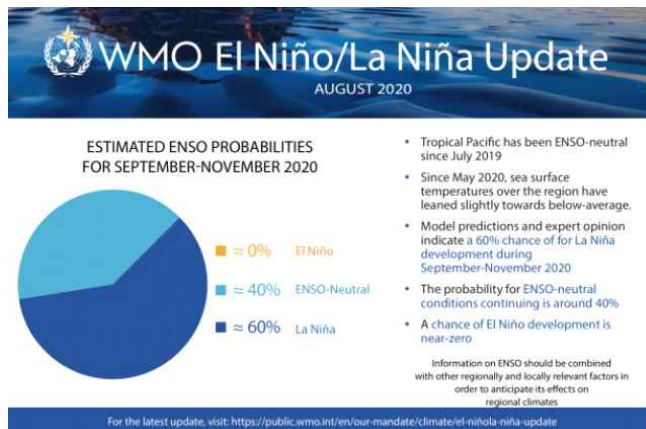




WMO Update:

9월-11월 라니냐 가능성 60%

(08.27자 WMO 기사)

번역 : APCC 전문위원 김세원

WMO가 이번에 새로 발표한 엘니뇨/라니냐 업데이트에 따르면, 금년 9월-11월 동안 약한 수준의 라니냐 발생 가능성은 60%다. 라니냐 효과가 지구 기온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리긴 하겠지만, 그마저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일 것으로 예상된다.

엘니뇨-남방진동(ENSO)은 적도태평양 상에서 대기 순환의 변화로 인해 이곳 해수면 온도가 오르내리는 자연 현상이다. ENSO는 날씨와 기후 패턴을 좌우하며 폭우, 홍수, 가뭄과 같은 재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엘니뇨일 때는 보통 기온이 상승하지만, 라니냐 때는 그 반대이다.

WMO 사무총장 페터리 탈라스는 “라니냐로 인한 기온 하강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상쇄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는 “지금 추세대로 가면 2020년은 역대 가장 따뜻한 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타는 듯한 더위, 이례적 산불, 재앙수준의 홍수, 해양 폭염 등 매우 극단적인 날씨가 2020년을 특징짓는다.” 라고 말하면서, “이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기후의 자연적 변동 현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의 결과다.” 라고 밝혔다.

WMO의 전지구계절기후업데이트(Global Seasonal Climate Update: GSCU)에 따르면 2020년 9월-11월의 해수면온도는 지구상 대부분 해역에서 평년값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표면 기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기간 중 지표면 기온은 대체로 평년 수준 미만으로 내려갈 것 같진 않고, 오히려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라니냐가 지역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GSCU는 9월-11월 동안의 강수량이 평년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해당지역으로 아프리카 동부와 남부지역, 서태평양과 남동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해역, 북미 중앙지역을 꼽는

다. 이와 반대로 평년을 웃도는 수준의 강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아시아 남부 및 남동부 전역과 호주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고 보인다.

기온의 경우 평년수준 미만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열대태평양 동쪽해역으로, 이 곳에서 2020년 4/4분기 전에 라니냐 임계값(thresholds)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모델 예측과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2020년 9월-11월 동안 라니냐 발생 가능성은 60%이며, ENSO 중립 상태로 지속될 확률은 40%이고, 엘니뇨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2020년 12월 ~ 2021년 2월간의 라니냐 가능성은 55%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최근 라니냐는 2017-2018년에 있었다. 이때의 라니냐는 수명이 5개월(2017년 11월 발생 ~ 2018년 4월 쇠퇴)일 정도로 기간은 짧고 강도는 약-중 수준이었다.

